



중동지역의 지중해 동부 연안에 위치한 레바논은 군사·외교적으로 민감한 시리아와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다. 특히 레바논은 일반적인 중동국가와 달리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지 않은 아랍국가로, 유럽연합과 협력조약에 조인한 바 있으며 지난 2015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 정부로부터 2,500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지원받았다. 이러한 영향 등으로 레바논 공군은 미국과 유럽산 항공기가 주를 이루며 조금씩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레바논 공군을 최근 본지 객원인 스테판 고센스 기자가 직접 취재했다.

취재 | Stefan Goossens

# THE LEBANESE AIR FORCE

레바논 공군





**레**바논 공군(Ai Quwwat al-Jawwiya al-Lubnaniyya)은 최근 6대의 A-29 슈퍼 투카노를 인수했다. 이 항공기들은 세스나 208을 기반으로 개발된 AC-208 컴뱃 카리반 공격기와 함께 레바논 공군의 현대적인 고정익기 전력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2005년까지 이스라엘과 시리아로부터 영토를 침해당하고, 내전에 시달렸던 국가치고는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고정익기, A-29B 및 AC-208이 주력**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28일, 레바논 공군이 주문한 6대의 A-29B 슈퍼 투카노 중 마지막 4대가 수도인 베이루트 북쪽에 위치한 하맛 항공기

지로 인도됐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긴 일정이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15년 6월, A-29B 슈퍼 투카노를 레바논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같은 해 11월 8일에 6대의 항공기가 발주됐다. 이 항공기들은 미 플로리다 주 잭슨빌에서 엠브레어가 제조했으며, 콜로라도 주 센테니얼에서

시에라레비다(SNC)가 개량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첫 2대의 A-29가 하맛 항공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제7비행대대에 인도됐다. 운용에 앞서 AC-208 조종사들이 미 조지아주 무디 공군기지의 제81전투비행대대에서 기종변경 훈련을 받았고, 레바논 최초의 슈퍼 투카노 조종사는 지난해 3월에 첫 훈련비행에 성공



했다. 무디 공군기지에서 두 번째 과정이 수료된 지 며칠 안 돼 나머지 4대의 항공기도 인도됐다. 구성과 연료탑재량에 따라 최대 90분의 비행이 가능한 A-29B는 하맛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레바논 국경지대까지 비행한 뒤에도 35분간 임무수행을 지속할 수 있다. 따라서 레바논 공군은 고속제트가 필요하지 않다. A-29B는 비교적 거친 활주로에서도 쉽게 운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맛 기지에는 부족한 점이 몇 가지 있다. 평행 유도रो와 야간운용 및 계기비행(IFR) 능력이 신속하게 도입돼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공공도로가 있어 비행 작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 ▲ 하맛은 베이루트 북쪽 60km 거리에 있는 소규모 항공기지다. 새로 인도된 6대의 A-29B를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격납고가 건설됐다.
- ▶ 레바논 공군의 회색 A-29B에는 볼트 온 방식 장갑판이 눈에 띈다.





▲ A-29B들은 레바논에선 IS를 몰아내기 위한 작전이 종료된 뒤에 인도됐다. 현재 7개 비행대대가 이러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에 몰두하고 있다.

A-29B는 저렴한 운용비용에 비해 상당한 전투력을 제공한다. 볼트 온 방식 장갑판과 플레어 발사장치와 함께 1,500kg의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 이 덕분에 레바논 공군은 M3M 50구경 기관총, 히드라 및 레이저유도 로켓인 APKWS(Advanced Precision Kill Weapons System) 발사를 위한 70mm 로켓포드, 250파운드급 Mk81 및 500파운드급 Mk82 폭탄, GBU-12 및 GBU-58 레이저 유도폭탄 등으로 A-29B를 무장할 수 있다. 이 외에 정보·감시·정찰(ISR) 및 표적지시 임무를 위한 BRITE 스타 DP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특히 A-29B는 레바논 공군에 가장 최신의 반란군 소탕(COIN) 능력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레이저유도 로켓인 APKWS는 중요한 무장이다. 최근 레바논은 6대의 A-29B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베이루트 항공기지에 전개 중인 제4비행대대는 3대의 AC-208을 운용하고 있다. 2009년, 2013년, 그리고 2017년에 각각 인도된 AC-208은 화물 및 병력 수송은 물론 공격, ISR 임무 등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공격과 ISR



▲ AC-208은 2발의 헬파이어 미사일로 무장할 수 있으며, 첨단장비를 이용해 ISR 임무를 수행한다. 이 외에도 화물 및 병력 이송용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있다.

◀ 베이루트 항공기지의 제4비행대대는 "칼라문 오픈시브"에서 활약하며 AC-208이 레바논 공군에 제공하는 가치를 잘 보여줬다.



▲ 레바논 공군이 고정익기를 다시 도입하면서 고정익 훈련기도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2008년에 불독 3대가 다시 현역으로 전환됐다.

1995년에 퇴역한 6대의 불독 중 3대는 2008년 경 다시 비행 가능한 상태로 복원돼 베이루트 항공기지의 제비행대대를 구성했으며 현재는 훈련기로 운용되고 있다.

#### 회전익기, 다양한 기종에 다양한 임무

레바논 공군은 다양한 헬기도 보유하고 있다. 베이루트 항공기지의 AC-208과 불독들은 제12비행대대의 UH-1H II와 제16비행대대의 S-61A, 그리고 2008년 카타르가 기부한 대통령 전용기인 AW-139(호출명 시더 I)와 함께 기지를 이용하고 있다.

IAR330SM 퓨마는 당초 아랍에미리트(UAE) 공군이 운용했던 기종으로, 하맛 항공기지의 제

▼ 레바논 공군은 S-61 3대를 소방헬기로 운용했지만, 지금은 1대만 현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2명의 조종사와 1명의 임무시스템 조작요원(MSO)이 탑승한다. 양쪽 주 날개에는 AGM-114 헬파이어 II 미사일을 1발씩 탑재할 수 있으며, 뛰어난 장시간 비행능력과 낮은 운용비용으로 빛을 발하는 항공자산이다.

마지막으로 호커 헌터 항공기가 2014년에 퇴역한 점을 고려하면, A-29B와 AC-208은 레바논 공군의 최신 고정익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호커 헌터는 2007년 나흐르 알-바레드작전을 통해 고정익기의 필요성이 강조되자 2008년에 다시 현역으로 투입됐다. 그 외에





▲ 가젤 공격헬기는 리약 항공기지에 배치된 제8비행대대가 운용한다. 이들은 1980년대 초에 UAE 공군이 사용하다가 인도한 것과 보다 최근에 프랑스가 인도한 항공기로 구성된다.

▼ UH-1H는 레바논 공군에서 일꾼의 역할을 한다. 화재진압, 농약살포, VIP 수송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9비행대대에 배치돼 부상자 후송, 지상공격, 그리고 탐색구조(SAR) 및 전투탐색구조(CSAR)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리약과 클리에이트는 모두 헬기전용 항공기이다. 리약에는 SA342L 가젤 공격헬기를 운용하는 제8비행대대와 R44 레이븐 II 및 UH-1H를 보유한 훈련부대인 제15비행대대가 주둔하며, 클리에이트 항공기지에는 UH-1H를 운용하는 제14비행대대가 주둔 중이다. 이들 UH-1H와 UH-1H II 다목적 헬기들은 병력 및 VIP 이송, 농약살포, 화재진압, 부상자 후송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된다.

오는 2020년에는 비행대대 6대의 MD530G를 도입해 새로운 비행대대가 창설될 예정이다.

이 항공기들은 UH-1과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레바논 공군의 가젤은 프랑스와 UAE가 인도했으며, 프랑스가 인도한 퓨마 헬기들은 루마니아에서 생산돼 UAE가 인도한 IAR330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5대의 AB212를 다시 현역으로 복귀시킨다는 계획이 있는 듯하지만, 아직 재개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현재 적어도 1대 이상의 AB212에 대한 정비작업이 베이루트 항공기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 레바논 공군은 UH-1H와 UH-1H II를 각각 클리에이트와 베이루트 항공 기지에 배치했다. 본래 베이루트 항공기지에는 제10 및 11비행대대가 배치됐으나, 지금은 해산돼 제12비행대대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 공군, 4개 항공기지 운영

레바논은 프랑스 위임통치령 시리아로부터 1943년 11월 22일에 독립했다. 이로부터 6년 뒤인 1949년 6월 10일에 레바논 공군이 창설됐다. 현재 4개의 항공기지를 두고 있는 가운데 본부는 베이루트에 위치해 있으며 200여 명의 장교와 1,050여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 레바논 공군 부대구성 및 운용기종

베이루트 항공기지 / 베이루트 라픽 하리리 국제공항	
제1비행대대	불독 Mk126
제4비행대대	AC-208
제12비행대대	UH-1H-II
제16비행대대	S-61A
대통령전용	AW-139
하맛 항공기지	
제7비행대대	A-29B
제9비행대대	IAR330SM
라약 항공기지	
제8비행대대	SA342L
제15비행대대(공군학교 예하)	R-44, UH-1H
르네 모아와드 항공기지/ 클리에이트 공항	
제14비행대대	UH-1H



▲ 제7비행대대와 제9비행대대가 하맛 항공기지를 함께 사용한다. 이 중 제9비행대대가 IAR330SM 헬기를 여러 대 운용하고 있다. 건식으로 개량되지 않은 퓨마 헬기는 탐색구조, 부상자 후송, 그리고 병력수송 임무를 수행한다.

## 퓨마 건식, 창의력의 결과물

재정이 풍부하지 않은 레바논 공군이지만 퓨마 건식은 이러한 상황에서 창의력을 발휘한 결과물이다. 퓨마 건식은 자체적으로 개량돼 30mm 기관포 2문(250~500발)과 68mm 로켓포드 2문으로 무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관포와 로켓 포드조차 각각 퇴역한 헌터와 미라지 III 기체에서 떼 낸 것이다. 또한 알로에 3의 조준기

를 이용해 무기제어패널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기관포와 로켓포드 대신 양 측면에 1,000 및 500파운드 폭탄을 각각 2발씩 탑재할 수 있다. 특히 무장을 모두 제거해 다시 "보통"의 퓨마로 되돌아가는 데 약 2시간이 소요되며, 레바논 공군은 이러한 퓨마 건식을 IS 소탕작전에 적극적으로 투입된 바 있다.



◀ 퓨마 양 측면에 탑재된 기관총과 로켓 포드는 각각 2발의 1,000파운드와 500파운드 폭탄으로 교체할 수 있다. 기지를 발휘한 덕분에 필요한 화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레바논 공군의 퓨마는 람보 III에 등장하는 건식과 유사하게 생겼다. 이 SA330 건식은 2017년에 IS 소탕작전에서 활약했다.







**대규모 실전에도 참가**

1975년 발발해 1990년까지 이어진 내전이 종료된 이후, 레바논 공군은 2건의 대규모 작전에 참전했다. 예컨대 2007년 5월, 나흐르 알 바레드 팔레스타인 난민캠프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팔레스타인 난민 무장단체 "파타 알 이슬람(Fatah al Islam)"이 수십 명의 레바논 군인과 민간인을 살해했다. 레바논 공군은 이에 대응해 장거리 대전차미사일인 HOT 미사일과 건포도로 무장한 가젤을 수차례 출격시켰다. 아울러 UH-1H 헬기를 개량해 Mk82 및 Mk83 폭탄과 68mm 로켓포드로 무장시켰다.

레바논 공군과 엔지니어링 여단은 표준 UH-1을 폭격기나 공격헬기처럼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정익기가 없는 상황을 타개했다. 요새화된 병커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2011년에는 시리아 내전이 레바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레바논 영토 내에서 시리아가 군사행동을 전개했다. 레바논군은 대체로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으나, 2014년 8월에 아살 전투에서 알누스라 전선과 IS 전투원들이 레바논 마을을 점령하고, 9명의 레바논 병사를 포로로 잡아 통제력을 수복하기 위해 레바논 공군이 대응했다.

2017년 7월과 8월에는 레바논군과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군이 (개별적으로)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지대의 알 카에다와 IS를 공격했다. 이 같은 상황은 2017년 8월 27일에 레바논 공군과 IS 사이의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종결됐다.

레바논 공군은 2017년의 "파즈 알-조라우드" 공격작전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가젤과 개량된 퓨마 헬기, 그리고 3대의 AC-208이 동원돼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로 공격을 전개

하거나 155mm 레이저유도포탄을 위해 표적지정을 했다. 이때 제4비행대대는 30시간 연속으로 AC-208을 운용하며 항공기와 인원이 많지 않은 부대로서는 인상적인 실적을 기록했다.





### 전쟁 역지

레바논 공군은 6대의 A-29B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가득한 환경에 처한 소규모 공군이다. 이들의 항공자산은 모두 손색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여러 차례 불안정한 작전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거의 모든 장비와 자산이 손실됐던 내

전으로부터 여전히 회복 중인 레바논 공군은 유사 시에 필요한 임무를 잘 수행해 낼 것으로 보인다.

A-29B를 획득한 것은 축하할 일이다. 무디 공군기지의 제81전투비행대 지휘관은 첫 레바논 공군 A-29B 조종사의 훈련을 마치며 "이들은 완벽하게 훈련된 A-29B 전투조종사들이다.

궁극적으로는 동쪽 국경지대에서 IS를 상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미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무색해졌다.

한편, A-29B는 현재 전쟁역지 및 경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도될 MD530과 추가적인 6대의 A-29B도 같은 용도로 운용될 전망이다. Ⓢ